



동료집단 슈퍼비전(supervision)

우리는 누구~?! 공동복지관 Cool한 머리, Hot한 가슴 지닌 전문가!
Cool한 머리, Hot한 전문가 되는거~?! 어렵지않아요~!#
가정방문, 프로그램 진행, 전화상담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보면 어느덧 퇴근시간~!
하지만 이날만큼은 풀풀몽친대! 그게 뭐냐구요~?
바로바로 동료집단 슈퍼비전(supervision)시간이랍니다!

성애리 wer(전문프로그램팀) :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된 계층이 가진 복합적 욕구에 대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관리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동료슈퍼비전(peer supervision) 시간 사례관리팀에서는 사례회의(case management)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김도훈 wer(사례관리팀) :

오늘 사례회의(case management)의 취지는 김분이(가명, 84세) 어르신이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선정하고자 하는 스크리닝(screening) 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가정방문을 통해 84세의 연세에 홀로 사시는 김분이(가명, 84세) 어르신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김분이(가명, 84세) 어르신이 직접 표출한 문제를 토대로 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층적 욕구 판단'을 서비스 계획으로 수립해보았습니다. ...(case 소개)... 김분이(가명, 84세) 어르신의 가계도와 생애도에서는 현재 (...)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표출욕구와 담당자의 심층적 욕구파악, 이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김혜경 wer(사례관리팀) :

case 소개를 통해 client에 대한 많은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여 의견 하나를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계도와 생애도, 지역사회에 김**어르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도 함께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도를 통해 파악된 비공식적 자원망인 김** 어르신의 교회 지인과 옆집 아주머니와의 상담이 진행된다면, 그 분들의 입장에서 김** 어르신에 대한 정보가 더욱 많이 수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훈 wer(사례관리팀) :

네.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에는 김** 어르신 비공식적 자원망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는 부분을 계획으로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어르신에게 나타난 경제적 욕구인 말반찬 서비스 지원, 정서적 욕구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말벗 서비스 지원, 의리적 욕구인 병원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주 wer(전문프로그램팀) :

김** 어르신 case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이 되나, 일단 아가 사례관리팀 김혜경 wer가 말한 것처럼 비공식적 자원망인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이후 정보가 더 수집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사례회의(case management)를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함현주 wer(지역사회조직팀) :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case에 대한 정보수집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담당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느냐가 본 기관과 case의 client가 1년을 단위로 상호적으로 연계를 맺어나가는 서비스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동안 case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지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말

Wer : 사회복지사 / Client : 사회복지의 대상자 / Case : 대상자의 사례

김도훈 w'er(사례관리팀)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사례회의(case management)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 후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하는 부분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ct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애리 w'er(전문프로그램팀) :

네. 그럼 다음 순서는 김혜경 w'er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평소 각자 담당해왔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앞으로 구상하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서로서로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는 평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묵혀놓고, 쌓아두고, 그러다 밤잠을 설치게 하던 궁금증을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어 싹~해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선배님들께도 슈퍼비전(Supervision)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일지도 쓴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슈퍼비전(Supervision)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지를 계획을 세워야겠죠~?!

일주일 단위로 계획(Weekly plan)을 세워서 또 코멘트도 받아요~

그리고 한주 업무가 마무리 되는 금요일~!

집단슈퍼비전을 통해 분석(Assessment)하고 다음주 계획(Next plan)을 세우면서
전문가가 되는 꿈을 키웁니다.

**특정한 슈퍼바이저가 지정되지 않으며,
모든 집단 구성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서로에게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한다.**

글 · 사회복지사 _ 함현주 / 사업진행 _ 복지사업팀